

경제

기아차 노조 사상 최대 규모 임금인상안 부결 후유증

가결시킨 광주공장 노조 '난감'

화성·소하리공장 노노갈등 우려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상 최대 규모 임금인상안을 부결한 가운데, 각 공장과 조직별로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하리공장은 5133명이 투표에 참여해 1707명이 찬성, 33.3%의 낮은 찬성률을 기록했고,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아차 노조 소식지인 '함성 소식'에 따르면 노사가 잠정합의안 임금인상안에 대해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46.8% 찬성이 그쳐 부결됐다.

이는 현대차의 협상 결렬,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조원 3만320명 중 2만8921명이 참가해 투표율은 95.4%였으며, 찬성 1만3547표(46.8%) 반대 1만5258표(52.8%)를 기록했다.

또 오는 9월 예정된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화성과 소하리공장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계파가 '부결 운동'을 벌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공장은 6509명의 노조원 중 6325명이 투표에 참여해 3308명이 찬성, 52.3%가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였다.

특히 현 집행부와 같은 계파인 화성공장마저 반대로 돌아서 부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돼 이후 재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매(찬성2024명, 59.5%)지부도 찬성률이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계파가 다른 광주공장 노사 합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이는 광주공장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에 노사가 함께 하고, 기아차의 임금이 지역에서는 최상위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합성소식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부·지회 임원회를 소집해 부결에 따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약속대로 휴가 이후 쉼의조정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쉼의행위결의로 투쟁의지를 밝히겠다"

고 밝혔다. 이어 "노사 임금의견일치안에 대해 현장에서 근거없는 내용이 사실처럼 유포된 게 많지만, 그럼에도 조합원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원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회사주식 80주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삼호중 노사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8일 '2011년 임금협상'을 5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했다.

노사 대표는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16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 5000원(4.89%) 인상 ▲상여금 100% 인상 ▲격려금 300%+300만원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5억원 출연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날 오후 전체 조합원(250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5%로 가결했다.

호남 최대 고용기업인 현대삼호중은 5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통시장 가는날 1기관1시장 자매결연 28일 광주지역 11개 특별행정기관장들이 복귀 우산동 말바우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전통시장 가는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1035·전남 981곳... 신설법인 사상 최대

올 상반기 집계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의 올 상반기 신설법인은 103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5곳)보다 16.9%가 늘었다.

6월 한 달 신설법인은 광주가 189곳이 새로 생겨 지난해 같은 달(147곳)보다 28.6%가 증가했으며 이는 울산(101.9%), 대전(53.2%)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신설법인 전체 누계에서는 광주가 지난 2009년 16.2%가 증가한 후 올 상반기까지 3년 연속 증가추세이며

전남은 지난해 10.3%가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4.0%포인트 증가한 3만2424개로 집계돼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6월 한 달간 새로 생긴 법인도 5987개로 2003년 이래 월간 신설법인 수 최대치를 경신했다.

6월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제조업(12.1%)과 건설업(3.1%), 서비스업(8.1%)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사업주의 법인 설립이 각각 15.7%, 13.0%씩 늘어 장년층의 창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이 세운 신설법인의 수도 1269개로 6.6% 늘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회복하면서 시작된 창업 열기가 정부 지원책과 맞아떨어져 신설법인의 증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성그린파크' 나주 남평에 184가구 분양

유성주택이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택지 개발지역에 '유성그린파크' 아파트 184가구를 8월 1일부터 분양한다.



유성그린파크는 지하 1층~지상 11층 3개동 규모며 79.04㎡(24평), 69.87㎡(21평), 58.40㎡(17평), 47.89㎡(14평)로 최근 인기가 높은 중소형 규모로 단지가 구성됐다.

라 차후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찾기가 힘든 3.3㎡(1평)당 300만원 대로 분양에 들어가며 남평 아파트 최초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준공 예정일은 올 12월이며 입주는 2012년 1월부터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현장(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36번지)에 개관했다.

지리적으로도 광주 상무지구와 차량을 이용하면 10여 분 거리에 있어 광주와 전남혁신도시를 모두 생활권에 둘 수 있다.

한편 유성그린파크는 남평도시개발 사업 중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유성주택이 인수, 국토해양부 안전진단을 거쳤으며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계약자의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2011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신선한 창업 아이디어를 형식 없이 제안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신선한 창업 아이디어를 형식 없이 제안서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돼 창업까지 성공한 '가족케어커쳐달력사업' 사례처럼 창업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무망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맞은 창업경영포럼(http://cafe.daum.net/dntckwtkd)도 이번 공모전과 관련,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공모전은 8월 19일 마감이다. (신청서 다운로드, www.newbiz.or.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8월 8일부터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창구)는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를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받는다.

시험은 오는 10월23일 광주공고 등 6개 시험장에서 치른다. 문의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062-970-1761 또는 고객센터 1644-8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0대 기업 10년 새 40% '물갈이'

30년간은 73% 바뀌어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40% 가량은 10년 사이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에 자리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100대 기업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41개가 지난 10년 사이(2000~2010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00대 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도 변해 1980년 건설(13개), 섬유(11개), 식음(8개), 금융(7개), 제약(6개) 분야가 강세를 보였지만, 3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금융(15개), 전자·통신(12개), 건설(7개), 조선(5개), 자동차(5개) 분야로 재편됐다. 30년 사이 100대 기업의 자리를 내 준 기업으로는 대한전선(1980년 3위), 쌍용양회공업(4위), 한일시멘트(15위) 등이 있었다.

시가총액 1위의 자리는 1980년대 삼성전자, 대일산업, 현대차, SK 등이 각축을 벌였지만, 1990년대에는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수위를 놓고 다했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2155.85 (-18.46), 코스닥지수 538.54 (+0.42), 금리 (국고채 3년) 3.81% (-0.01), 원·달러 환율 1051.70원 (+1.70)

Advertisement for '大山프리모남녀가발' (Dae San Primo Men's and Women's Shoes) featuring '가발' (hairpiece) and '초슬림!!' (super slim) features. Includes contact info for 이수채 (011-607-5330).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a premium buffet. Features '프리미엄 뷔페' (premium buffet) and '아이엘리시아' (AIELISIA) branding. Includes phone number 062)671-1199 and location at CGV.